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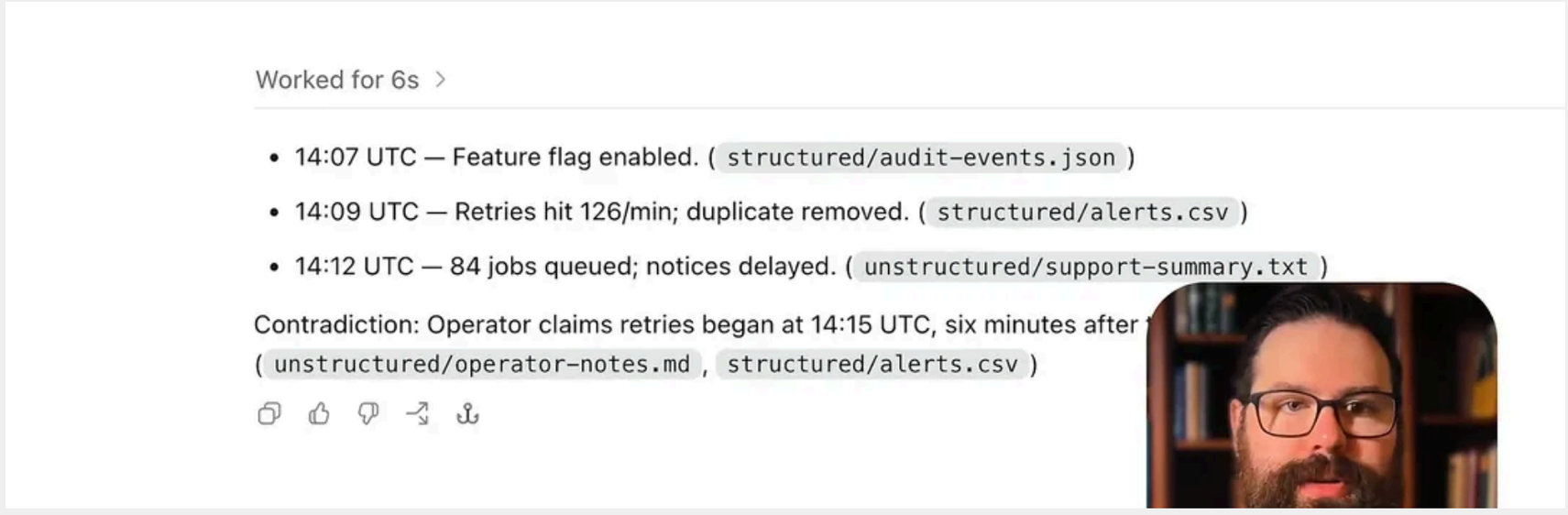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3 호 |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 오늘의 AI

AI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오픈AI가 Codex 고속 모드 Ultrafast로 사내 장애 조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인 사례를 공개했다. 엔지니어들은 답이 빨라지자 주의를 나누지 않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AI ·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오픈AI 엔지니어들이 장애가 터졌을 때 기본으로 켜는 도구는 Codex의 고속 모드 Ultrafast다. 오픈AI는 10월 26일 자사 기술을 사내에서 쓰는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OpenAI on OpenAI에서 Ultrafast가 장애 조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보안 설계를 맡은 AJ 트보예비치(AJ Trbojevic) 기술 스태프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붙이는 보안 조사에 예전에는 한두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10~15분이면 끝나고, 때로는 거의 실시간"이라고 말했다.

장애 대응을 주로 지휘하는 에런 프리엘(Aaron Friel) 기술 스태프는 사고가 나면 슬랙에 대응 채널을 열고 Codex에게 그 채널을 지켜보며 조사하고 들어오는 질문에 답하라고 맡긴다. 그는 "장애마다 무엇이 잘못됐을 수 있는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맞는 건초 더미에서 맞는 바늘을 찾는 것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의 핵심 일"이라며 "Ultrafast로는 그 건초 더미를 사실상 한꺼번에 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탈이 확인한 오픈AI 공개 영상에서 프리엘은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을 조립 라인의 비상 정지 버튼이 눌린 상황에 빗댔고, Codex가 근본 원인을 찾으며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에이전트가 명령을 실행하고 도구를 쓰게 하는 코드를 만드는 코어 에이전트팀의 애덤 페리(Adam Perry)와 사얀 시소디야(Sayan Sisodiya)도 보안 사고 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페리는 "예전에는 Codex에 무언가를 조사해 달라고 맡기고 기다리기엔 느리다는 걸 알아서 나도 동시에 직접 들여다봤다"며 "이제 Codex가 충분히 빨라 주의를 나누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소디야는 로그만이 아니라 슬랙까지 Codex로 훑어 의심스러운 변경을 언급한 대화나 비슷한 증상을 말한 글을 찾는다.

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사내 증언이 보여 준다.



아마존, AI 웨어러블 Bee Frontier 출시

메탈은 오픈AI가 GPT-6.1 Sol용 Ultrafast를 출시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오픈AI API 가이드에 따르면 Ultrafast는 API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 등급으로 GPT-6 Astra와 GPT-6.1 Sol에 열려 있으며, 회사는 속도가 더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때 쓰라고 권한다. 도구 호출이 잦은 에이전트 앱에는 웹소켓 연결을 강하게 권장하는데, 연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부담이 속도 이득을 깎아 먹기 때문이다. 기본 분당 토큰 한도는 최상위 Grow 등급 기준 GPT-6.1 Sol이 4,000만, GPT-6 Astra가 500만이다. 장애 대응처럼 1분이 비용인 현장에서 오픈AI가 스스로 이 등급을 기본값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의 요지다.

공식 벤치마크는 미국 프런티어 모델과 겨룰 수준을 보여 준다. 실제 터미널 작업을 엄격한 테스트로 채점하는 Terminal-Bench 4.0에서 K3.1 Pro는 65.7%로 GPT-6 Astra의 58.2%를 넘었고 Claude Opus 5.5의 66.4%에 바짝 붙었다. 사내 장기 코딩 평가인 Kimi Code Bench 3.0 Long-horizon에서는 61.2%로 K3의 55.95%보다 높았다. 다중 시점 렌더링을 보고 CAD 코드로 3D를 재구성하는 BenchCAD에서는 도구를 쓸 때 92.7%를 받아 Claude Opus 5.5의 96.2%, GPT-6 Astra의 95.9%에 다가섰다. 실제 재무 문서를 분석하는 OfficeQA Pro v2에서는 64.4로 최고 기록을 냈다고 회사는 밝혔다.

긴 작업 능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블로그에 실렸다. 뼈 부품 296개와 근육 부품 402개로 이뤄진 오픈소스 인체 모델 위에서 K3.1 Pro가 걷기 시뮬레이터를 만든 실험이다. 모델은 167개 임무와 420회의 독립 검토를 거치며 몇 초 만에 쓰러지던 가상 인체를 11.2초 동안 번갈아 걷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 근육 계산 오류 36개를 스스로 찾아 고쳤다. 사내 환각 평가의 어려운 문항에서 주장 단위 환각 비율은 K3의 23.4%에서 8.3%로 내려갔다. 회사는 이 수치가 일부러 오류를 유도하도록 만든 문항의 결과이고 일상 사용의 오류율이 아니라고 적었다.

외부 평가도 비슷한 그림이다. 개발자 사이먼 윌리슨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독립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가 K3.1 Pro에 55점을 매겨 Claude Fable 5.1과 GPT-6 Astra, Gemini 4 Argon(모두 53점)을 앞섰고 Claude Opus 5.5(58점)에만 뒤졌다고 전했다. 그는 "곧 오픈 웨이트가 될 모델이 프런티어와 견줘 이만큼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메탈은 미국 코딩 에이전트 회사 코그니션이 직전 모델 Kimi K3 위에 SWE-2를 세운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중국 오픈 웨이트 모델이 미국 제품

AI

문샷 AI, Kimi 구독자 사용량 25% 복구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새 모델 Kimi K3.1 Pro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구독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회사는 10월 26일 Kimi 공식 X 계정에 K3.1 Pro 구독 요금제에서 생긴 속도 제한과 불필요한 사용량 소모를 두고 "이건 우리 문제였고, 더 빨리 고쳤어야 했다"고 밝혔다. 보상으로 모든 요금제의 모든 구독자에게 월간 사용량의 25%를 한 차례 복구해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 양이 일주일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늘 지면

1 AI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2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3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4 기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5 AI 문샷 AI, Kimi 구독자 사용량 25% 복구
6 비즈니스 앤스로픽, 나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S-1 제출



김수진 교수, K-GX 대신 페트병 순환 제안



아일랜즈 AI 에이전트, 언론사에 투고 제안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기 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구글이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기업 이그나이트 에너지 액세스(Ignite Energy Access)와 3년 동안 협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온실가스 배출을 16만 tCO2e 넘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그나이트가 2023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보급한 태양광 기기는 370만 대다. 구글은 위성 영상과 건물 데이터, 경로 최적화 모형으로 전력망 밖 가구를 찾아 기기를 배달하는 물류 문제를 함께 풀었다고 설명했다

▶ 2면에 계속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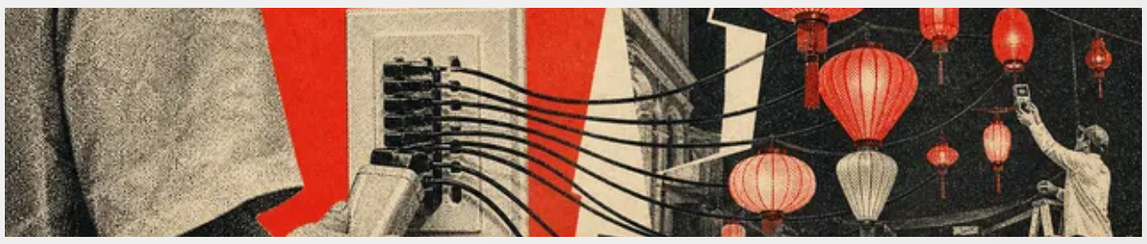
오픈AI가 화면을 읽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중형 모델 GPT-6.1 Terra를 10월 26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표준 API 요금은 전작 GPT-5.6 Terra와 상위 모델 GPT-6.1 Sol의 절반으로 내렸다. 오픈AI는 발표문에서 GPT-6.1 Terra를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정밀한 시각 추론과 컴퓨터 사용, 더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한 모델에 묶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ChatGPT Work와 Codex의 Plus·Pro·Enterprise·Edu 사용자 전원에게 배포됐고, 개발자는 API에서 gpt-6.1-terra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오픈AI가 내세운 근거는 비용 대비 성능이다. 건축 도면을 3D 모델로 옮기거나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컷씩 검토해 복원 팀용 타임코드 기록을 만드는 전문 업무 벤치마크 Agents'

▶ 2면에 계속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구글 리서치가 동남아시아 12개 언어로 대형언어모델(LLM)을 시험하는 벤치마크 DEEPSEA를 공개했다. 10월 19일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에 따르면 프런티어 모델은 저자원 언어에서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았지만, 70억~80억 파라미터급 오픈 웨이트 모델은 저자원 언어 묶음에서 수학 점수가 영어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모델이 목표 언어보다 영어를 거쳐 생각할 때 더 잘 푼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구글 리서치는 10월 26일 X에서 EMNLP 2026 행사장 구글 부스(D5)에서 공동 저자 슈밤 미탈(Shubham Mittal)이 DEEPSEA 실시간 시연을 연다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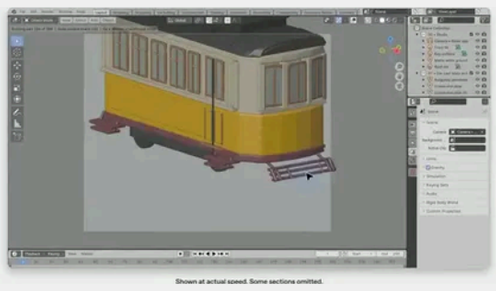
논문이 겨냥한 공백은 동남아 인구 7억 명이 쓰는 언어의 대부분이 기존 평가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1 오픈AI는 10월 26일 컴퓨터 사용과 시각 추론을 강화한 GPT-6.1 Terra를 ChatGPT Work·Codex·API에 공개했다.

2 Agents' Last Exam에서 GPT-5.6 Terra보다 15%포인트 높은 점수를 약 3분의 1 비용으로 냈고, Terminal-Bench 4.0 점수는 21.5%에서 50.3%로 올랐다.

3 어려운 질문의 사실 오류율은 낮은 추론에서 53.6%에서 16.7%로 떨어졌고, 사이버보안 항목은 준비 프레임워크의 Critical 기준에 해당했다.

데스크톱 앱을 여러 단계로 다루는 능력을 재는 OSWorld 2.1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중간 추론의 GPT-6.1 Terra가 GPT-5.6 Terra의 최고 점수를 넘었고, 과제당 비용은 그 일부에 그쳤다. 시각 추론 벤치마크 MMMU-Pro에서는 모든 추론 설정에서 전작을 앞섰고, GPT-6 Astra와 GPT-6.1 Sol의 점수에 근접했다. 오픈AI가 예로 든 쓰임새는 들어오는 청구서를 읽고 회계 소프트웨어에 내용을 입력하는 일처럼 양이 많고 반복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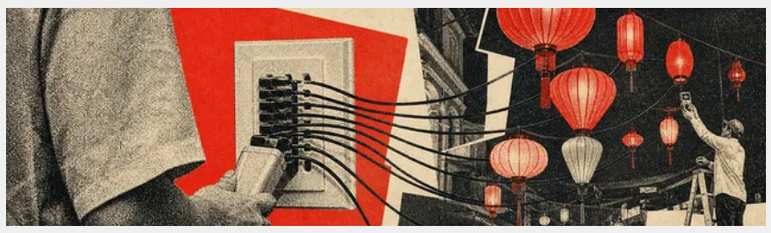
사실 오류도 크게 줄었다. 오류를 유도하도록 설계한 오픈AI 내부 벤치마크에서 낮은 추론 강도의 오류율은 GPT-5.6 Terra의 53.6%에서 16.7%로 3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최대 추론에서는 18%포인트 내려간 4.3%로, GPT-6 Astra와 GPT-6.1 Sol 수준에 가까워졌다. 오픈AI는 "올해 모델의 환각과 사실 오류를 줄이는 데 크게 투자했다"고 밝혔다.

코딩 성적은 전작의 두 배를 넘었다. 명령줄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재는 Terminal-Bench 4.0에서 최대 추론의 GPT-6.1 Terra는 과제의 50.3%를 풀었고, GPT-5.6 Terra가 공개한 점수는 21.5%였다. 독립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X에서 이 벤치마크에서 약 20점이 올라 최대 추론에서 GPT-6.1 Sol에 맞설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기관은 GPT-6.1 Terra가 GPT-5.6 이후 첫 Terra급 모델이며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가장 복잡한 코딩 과제에는 여전히 GPT-6.1 Sol과 GPT-6 Astra가 낫다고 선을 그었다. 과학 연구 과제를 코드로 수행하는 Terminal-Bench-Science 0.1에서는 최대 추론의 GPT-6.1 Terra가 GPT-6.1 Sol을 더 낮은 비용으로 앞섰고, 추정 비용 5분의 1 미만으로 Opus 5.5와 5점 이내 차이를 보였다.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1 구글 리서치 연구진 4명이 10월 19일 동남아 12개 언어·5개 과제로 LLM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DEEPSEA 논문을 공개하고 데이터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풀었다.

2 Gemini 3.7 Flash는 수학 추론에서 영어 99.2점, 저자원 언어 96.4점을 받았고, Qwen2.5 7B는 93.2점에서 36.2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3 모델은 목표 언어보다 영어로 생각하거나 영어 요약을 거칠 때 더 높은 점수를 냈고, 라오어 토큰 수는 GPT-5 토크나이저에서 영어의 7배 가까이 됐다.

과제는 다섯 가지다. 수학 추론(MGSM), 생물·화학·물리 과학 추론(IndoMMLU), 지문 속 답 찾기(XQuAD), 영어 기사를 목표 언어로 요약하는 과제(CrossSum), 영어에서 목표 언어로 옮기는 번역(WMT24++)이다. 기존 데이터에 해당 언어가 없으면 전문 원어민 번역가에게 맡겼다. 저자원 8개 언어 평가 세트만 해도 질의응답 9,520건, 번역 7,976건, 과학 추론 5,880건이다. 메탈이 확인한 논문 부록에 따르면 자동 번역 품질 평가(Auto-MQM) 평균은 0.86으로 연구진이 전문가 수준으로 정한 0.80을 넘었고, 원어민이 문장의 5~10%를 뽑아 본 정확도는 93.9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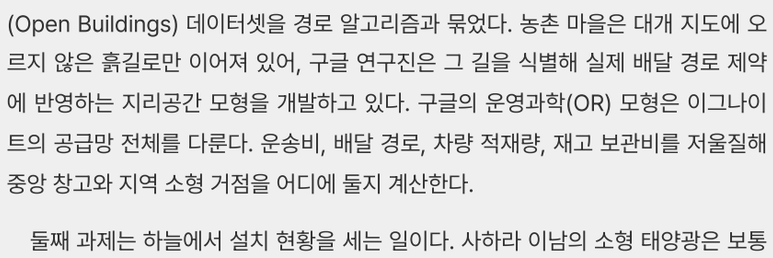
성적표의 맨 위는 Gemini 3.7 Flash였다. 수학 추론에서 영어 99.2점, 저자원 언어 96.4점을 받아 차이가 2.8점에 그쳤다. 과학 추론은 86.5점에서 86.1점으로 거의 그대로였다. Claude Sonnet 5도 수학에서 영어 98.8점, 저자원 95.4점으로 바짝 붙었다. 오픈 웨이트 가운데 가장 높은 SEA-LION v4 27B는 저자원 수학에서 83.8점이었다. 다만 이 벤치마크를 만든 곳이 구글 리서치이고 1위가 구글 모델이라는 점은 독자가 함께 알아야 할 사실이다. 연구진은 평가를 온도 0의 제로샷으로 고정해 결과가 매번 같게 나오도록 했다.

격차가 벌어진 곳은 작은 모델이다. Qwen2.5 7B는 수학 추론에서 영어 93.2점, 고자원 78.3점, 저자원 36.2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Llama 3.1 8B는 과학 추론 저자원 점수가 24.5점이었다. 연구진은 "작은 언어 모델은 목표 언어에 특화되지 않는 한 다국어 능력에서 뒤처진다"고 썼다. 같은 Gemma 3라도 27B는 저자원 과학 추론 71.5점, 12B는 63.6점으로 크기가 클수록 언어 간 전이가 강해졌다. GPT-5.6 Luna는 질의응답 F1이 저자원 65.8점으로 다른 과제보다 크게 낮았는데, 연구진은 지문 속 문구를 그대로 뽑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을 바꿔 답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 1면에서 계속

기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1 구글은 이그나이트 에너지 액세스와의 협력이 올해 상반기 16만 tCO2e 이상의 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했다고 10월 26일 추정했다.

2 이그나이트는 2023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태양광 기기 370만 대를 보급했다.

3 두 회사는 다음 단계로 전기 조리를 위한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모델링하고 있다.

협력은 구글의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프로그램(Startu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이뤄졌다. 구글 연구자와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가 이그나이트와 100회 넘는 자문 세션을 가졌다. 글을 쓴 어윈 부트불(Irwin Boutboul) 구글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총괄과 야샤 월린(Yasha Wallin)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풀어야 할 과제를 셋으로 정리했다. 주소가 없는 가구의 위치를 찾는 일, 험한 농촌 지형을 뚫고 하드웨어를 배달하는 일, 위성 영상의 한계 속에서 이미 설치된 기기를 원격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첫 과제는 지도에 없는 집을 찾는 것이다. 공동 팀은 위성 영상과 구글의 오픈 빌딩(Open Buildings) 데이터셋을 경로 알고리즘과 묶었다. 농촌 마을은 대개 지도에 오르지 않은 흙길로만 이어져 있어, 구글 연구진은 그 길을 식별해 실제 배달 경로 제약에 반영하는 지리공간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의 운영과학(OR) 모형은 이그나이트의 공급망 전체를 다룬다. 운송비, 배달 경로, 차량 적재량, 재고 보관비를 저울질해 중앙 창고와 지역 소형 거점을 어디에 둘지 계산한다.

둘째 과제는 하늘에서 설치 현황을 세는 일이다. 사하라 이남의 소형 태양광은 보통 지붕 위 패널 한 장이라 일반 위성 영상에서는 1픽셀 남짓으로 잡힌다. 구글 연구진은 과학용 제미나이(Gemini for Science)로 컴퓨터 비전 모형을 만들고, 이그나이트가 제공한 드론 실측 영상으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끌어올리려고 코드 변형 수천 개를 시험 중이다. 이미 전기가 들어온 마을을 알아야 아직 남은 마을로 자원을 돌릴 수 있어서다.

AI

문샷 AI, Kimi 구독자 사용량 25% 복구

문샷 AI가 Kimi K3.1 Pro 출시 직후 생긴 속도 제한과 불필요한 사용량 소모를 사과하고 모든 구독자에게 월간 사용량 25%를 되돌려 주기로 했다. 회사는 서브에이전트 호출과 출력 길이도 줄인다고 밝혔다.



1 문샷 AI는 10월 26일 Kimi K3.1 Pro 구독 요금제의 속도 제한과 불필요한 사용량 소모를 사과하고 모든 구독자의 월간 사용량 25%를 한 차례 복구했다.

2 회사는 요금제 매개변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서브에이전트 호출과 출력 길이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3 K3.1 Pro는 Terminal-Bench 4.0에서 65.7%를 기록한 3T급 오픈 웨이트 모델로, 전체 가중치는 11월 4일까지 공개된다.

중국 AI 스타트업 문샷 AI가 새 모델 Kimi K3.1 Pro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구독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회사는 10월 26일 Kimi 공식 X 계정에 K3.1 Pro 구독 요금제에서 생긴 속도 제한과 불필요한 사용량 소모를 두고 "이건 우리 문제였고, 더 빨리 고쳤어야 했다"고 밝혔다. 보상으로 모든 요금제의 모든 구독자에게 월간 사용량의 25%를 한 차례 복구해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 양이 일주일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구 방식은 단순하다. 이미 쓴 사용량에서 월 한도의 25%만큼을 되돌리고, 사용량이 25%에 못 미친 구독자는 0으로 초기화한다. 회사에 따르면 사용량 막대에는 미국 태평양 표준시 기준 26일 하루가 끝나기 전에 조정이 반영된다. 사과 글은 메탈이 확인한 시점까지 33만 회 넘게 조회됐다.

문샷은 원인 쪽도 손봤다. 회사는 요금제의 매개변수를 조정했고, 불필요한 서브에이전트 호출과 출력 길이를 줄이고 있어 같은 한도로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서브에이전트 호출은 여러 AI 에이전트가 작업을 나눠 맡는 과정을, 출력 길이는 질문 하나에 모델이 생성하는 토큰의 총량을 가리킨다. 같은 보도는 문샷이 직전 모델 K3를 냈을 때도 컴퓨팅 용량 문제를 겪었고, 중국 AI 연구소들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이후 연산 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

앤스로픽, 나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S-1 제출

앤스로픽이 상반기 매출 163억 달러와 2분기 영업이익 10억 달러를 담은 S-1 증권신고서를 SEC에 냈다. 장기공익신탁이 이사회 과반을, 공동창업자 7명이 의결권 50.1%를 쥐는 지배구조도 공개됐다.



1 앤스로픽은 10월 26일 SEC에 S-1을 제출하고 나스닥에 종목코드 ANT로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가와 주식 수는 미정이다.

2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로 1,300% 늘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10억 달러, 영업이익률 8%를 냈다.

3 장기공익신탁이 이사회 과반을 뽑고, 공동창업자 7명의 유한책임회사가 클래스 F 1주로 의결권 50.1%를 갖는다.

앤스로픽이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회사는 클래스 A 보통주를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종목코드 ANT로 상장할 계획이며,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이고 JP모건,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등 22곳이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앤스로픽은 X 공식 계정에 "앤스로픽이 IPO와 관련해 SEC에 S-1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고, 이 게시물의 조회 수는 반나절 만에 180만 회를 넘었다.

메탈이 확인한 S-1 원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매출은 2023년 4,100만 달러, 2024년 3억 8,600만 달러, 2025년 46억 달러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2억 달러보다 1,300% 늘었다. 2분기만 떼어 보면 매출 116억 달러, 영업이익 10억 달러, 영업이익률 8%다. 1년 전 2분기 매출은 7억 8,700만 달러였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52%였다. 비용 일부를 조정한 조정 영업이익률은 같은 분기 19%로,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221%에서 240%포인트 올라섰다.

순손실은 다른 그림이다. 순손실은 2025년 420억 달러, 올해 상반기 807억 달러였다. 다만 상반기 손실 가운데 724억 달러는 전환사채와 파생부채,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나왔다. 회사 가치가 오를수록 미리 발행한 전환사채의 장부가치가 불어나 손실로 잡히는 구조다. 신고서는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앤스로픽은 "매출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AI 산업이 매우 초기여서 과거에도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적었다.

기후

김수진 교수, K-GX 대신 페트병 순환 제안

김수진 단국대 초빙교수가 1,000조원 규모 K-GX 전략보다 페트병 하나를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마이크로 프로젝트가 먼저라고 제안했다. 그는 투명 페트병 회수율이 87%인데 식품용으로 돌아오는 비율은 2% 남짓이라고 짚었다.



1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는 칼럼에서 K-GX의 NDC 영향 분석이 2027년 이후로 미뤄졌다며 감축이라는 목적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2 2025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8,571만 톤으로 전년보다 0.9% 줄었고, 2030 NDC를 맞추려면 연평균 감축량이 지금까지의 약 2.5배가 돼야 한다.

3 그는 투명 페트병 회수율 87%에도 식품용 재활용은 2% 남짓이라며 독일 보증금제처럼 순환 경로를 만드는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초빙교수가 26일 공개한 칼럼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두고 거대한 비전보다 페트병 하나를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작은 제도가 먼저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2035년까지 1,00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감축사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2027년 이후로 미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무엇을 위한 K-GX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은 흐려지고 녹색산업이라는 수단이 목적화된 것 같다"고 밝혔다.

출발점은 배출량 통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0일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6억 8,571만 톤으로 집계했다. 전년보다 610만 톤, 0.9%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은 줄었지만 전력과 건물, 냉매 부문은 늘었다. 경북 산불 영향으로 산림·토지의 흡수량이 22.8% 급감하면서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은 6억 5,470만 톤으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2018년과 비교한 감축량은 8,400만 톤, 11.4%다.

김 교수의 계산으로는 남은 길이 훨씬 가파르다. 2030년 NDC를 맞추려면 앞으로 5년 동안 1억 4,900만 톤을 더 줄여야 한다.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1,200만 톤을 줄였다면 앞으로는 해마다 약 2,980만 톤, 지금까지의 약 2.5배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녹색전환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추구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